

조선시대에 刊印된 ■春秋■ 板本에 관한 書誌的 연구

A Study on the Printed Books of *Ch'un-ch'iu*(春秋) Commentary in Chosun Dynasty Period

염 종 일(Chong-II Yeom)*
송 일 기(II-Gie Song)**

목 차

1. 緒論	4. 『春秋』板本의 類型別 分析
2. 『春秋』의 성립 및 전개	4.1 板種別 分析
2.1 『春秋』의 성립 및 『春秋三傳』의 편찬	4.2 刊行時期別 分析
2.2 『春秋』의 수용과 전개	5. 『春秋』板本의 形態別 分析
3. 『春秋』板本의 유통양상	5.1 邊欄
3.1 冊板目錄상의 『春秋』板本	5.2 行字數
3.2 現存本 『春秋』板本의 현황	5.3 魚尾
	6. 結論

초 록

이 연구는 조선시대에 간행된 『春秋』 주해서의 여러 板本에 대하여 문헌상의 기록과 판본에 대한 실제 조사를 통해 현존하는 판본들의 유형별, 형태별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그 특징에 대하여 서지학적 고찰을 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조선시대에 간행된 〈冊板目錄〉 가운데 비교적 그 작성시기가 명확한 것을 선정하여 살펴봄으로써 문헌상에 나타나는 『春秋』판본의 개판 상황을 조사하였으며, 고서를 소장하고 있는 주요 기관들의 고서종합목록과 주요대학도서관의 고서목록DB를 검색하여 『春秋』板本의 종합적인 서목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각 소장기관을 방문하여 실물의 확인과 촬영, 복사 등을 통해 현존본 『춘추』판본의 서지사항을 담은 〈綜合書目〉을 작성하였다. 이렇게 작성된 〈종합서목〉을 기준으로 활자본 14종과 목판본 13종이 현존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들의 유형별 특징에 대해서 서지학적으로 고찰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in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inted books of 『*Ch'un-ch'iu*(春秋)』 commentary in Chosun dynasty by analyzing the types and forms of the existing printed books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the bibliographic records of the books.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selected some of the 'Chak-pan' catalog(冊板目錄) printed in Chosun dynasty which has relatively clear and accurate history and investigated the block printing's condition of the printed books of 『*Ch'un-ch'iu*(春秋)』 commentary. In addition, a comprehensive book catalog of 『*Ch'un-ch'iu*(春秋)』 commentary was created by retrieving old book catalog from databases by several authoritative information centers and university libraries. Based on this catalog, this research created a new 'Union Catalog(綜合目錄)' which contains bibliographies of the 『*Ch'un-ch'iu*(春秋)』 commentary through field investigations by identifying, picture-taking, and copying the real books. The new union catalog functions as the basis of the bibliographic analysis of this research.

키워드: 오경, 공자, 춘추, 책판목록

Okyung, GongJa, *Ch'un-ch'iu*, Chak-pan Catalog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chilyeom@daum.net)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gsong@cau.ac.kr)

논문접수일자 2007년 11월 30일

제작확정일자 2007년 12월 11일

1. 緒 論

조선은 유교정치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관료 제도를 토대로 중앙집권적 체제를 유지한 국가이다. 특히 고려 말에 수용한 성리학은 조선 건국 후에 정치, 사회, 문화 전반을 지배하는 기본 이념이 되었다. 성리학은 조선조에 있어 교육과 관리등용의 수단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많은 서적이 간행 유통되었다. 이에 따라 유교의 가장 근본적인 경전인 〈四書〉와 〈五經〉의 주석과 편찬 작업이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유학서적의 출판활동은 중앙과 지방의 관청, 鄉校와 書院을 비롯하여 각 지방의 명문사가와 사찰, 그리고 심지어 조선후기의 민간출판 업자에 의해서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따라서 조선시대에 이루어진 유학서적의 간행과 유통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바로 유교를 정치사상의 기본이념으로 삼은 조선 시대의 文化·思想的 기반에 대하여 그 일면을 밝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조선시대의 출판문화와 유학서의 간행에 대한 개괄적 연구는 수차례 이루어져 왔으나, 그 연구의 토대가 되어야 할 개별 유학서의 간행 및 유통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¹⁾ 또한 유교의 대표적 경전의 하나인 『春秋』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사상적, 經學的 측면에만 치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조선시대에 간행된 『春秋』板本에 대해 문헌상의 기록과 현존하는 실물을 대상으로 서지학적 측면에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춘추』판본의 전체적인 현황 및 유형별, 형태별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를 위해, 첫째, 『춘추』의 편찬과 〈春秋三傳〉의 전개, 『춘추』의 국내 수용과 전개양상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사료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조선시대에 작성된 册板目錄 중에서 비교적 작성시기가 확실한 목록들을 대상으로 책판목록 상에 기록된 『춘추』판본을 조사하여 『춘추』의 수록현황과 지역별, 시기별 특성을 살펴보았다. 셋째, 국립 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등의 고서목록을 참조하여 『춘추』판본의 종합적인 서목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자료를 소장한 기관을 실사하여 실물자료와 작성한 목록의 대조를 통해 동일 판본을 배제한 현존하는 『춘추』판본의 〈綜合書目〉을 작성하였다. 넷째, 작성된 〈종합서목〉을 근거로 현존하는 『춘추』판본에 관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유형별 및 형태별 특징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유형별 분석에서는 『춘추』판본에 대하여 板種別 분석을 통해 활자본과 목판본으로 나누어 살펴보며, 또한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 나누어 간행시기별로 분석하였다. 형태별 분석에서는 각기 활자본과 목판본으로 나누어 판식의 주요한 요소인 邊欄, 行字數, 그리고 魚尾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에 있어서는 시기적으로 최초의 『춘추』판본인 『音註全文春秋括例始末左傳句讀直解』가 국내에서 간행된 조선 世宗 13년(1431) 이후부터 조선의 국권이 폐탈되는 한

1) 다만 최근 안현주에 의해서 조선시대에 간행된 〈四書〉의 제판본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안현주, 朝鮮時代 〈四書〉의 板本 研究,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8).

일합방(1910년) 이전까지 간행된 『춘추』 諸版本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인쇄를 통해 간행된 판본, 즉 필사본을 제외한 목판본과 활자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춘추』에 관하여 연구하는 春秋學의 발달로 인하여 『춘추』를 대상으로 발췌, 초록하여 저자의 註解를 실은 문헌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²⁾ 그래서 이러한 단편적인 주석 문헌들을 모두 제외하고, 『춘추』 經文 전체가 온전히 수록된 판본만을 이 연구의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다른 유학 경전과 다르게 經文 자체만을 수록하여 간행한 경우가 없이 경문의 이해를 돋기 위한 傳 또는 註解가 함께 수록된 형태로 간행·유통되었으므로, 『춘추』 판본뿐 만 아니라 이를 주제한 여러 판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春秋』의 성립 및 전개

2.1 『春秋』의 성립 및 『春秋三傳』의 편찬

五經의 하나인 『춘추』는 최초의 編年體 史書로서 공자의 출신국인 노나라의 역사기록으로 동시대 각국의 역사의 역사적 사실이 연도에 맞추어 쓰여 진 것이다. 이는 東周 平王 49年(魯 隱公 元年, B.C.722)부터 敬王 39년

(魯 哀公 14年, B.C.481)까지 노나라 12公 242년간의 기록을 담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이 시기를 춘추시대로 명명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래서 『춘추』는 곧 春夏秋冬의 略稱으로 1년간의 年代記를 뜻하는데, 본래는 周王朝 치하 각 제후국의 독자적인 편년사를 가리키는 통칭으로서 『吳越春秋』, 『呂氏春秋』, 『十六國春秋』 등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杜預의 『春秋經傳集解』와 徐彥의 『公羊傳疏』에서는 編年別로 기록되는 특징 때문에 그 해의 시작인 春과 그 해를 거두어 바치는 秋를 따서 각국의 史書를 ‘春秋’로 명명했음을 밝히고 있다.³⁾⁴⁾ 공자의 筆削을 거친 『춘추』가 저작된 이후 ‘春秋’란 용어는 유교경전인 ‘春秋經’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로서 사용되게 된다.

『춘추』는 12公 242年的 기록을 모두 수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체가 너무도 간결하여 수록된 문자수는 총 1만 6천 5백자 남짓하다. 문체의 간결성으로 인해 해석이 어렵다는 『춘추』의 특성이 아마도 단행본으로서의 『춘추』가 사라지고 그 주석서인 傳과 합본된 형태로 현전하게 된 주요한 이유일 것으로 이해된다. 漢代 이후 전승이 끊어진 궤씨와 협씨의 傳을 제외한 『左氏傳』, 『公羊傳』, 『穀梁傳』을 『春秋三傳』으로 부른다. 여기서 ‘傳’이란 ‘聖經賢傳’이란 표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불변의 진리를 담고 있는 聖人의 경전을 대상

- 2) 조선시대 춘추학의 발달로 인하여 나타난 『春秋』 관련서는 전·후기를 통하여 대략 70여종 정도가 나타난다. 주요한 저술들을 살펴보면 李恒福(1556-1618)의 『魯史零言』, 崔錫鼎(1646-1715)의 『左氏輯選』, 朴世采(1631-1695)의 『春秋補編』, 沈大允(1806-1872)의 『春秋四傳注疏抄選』과 『春秋四傳續傳』, 丁若鏞(1762-1836)의 『春秋考徵』 등이 있다.
- 3) 杜預, 『春秋經傳集解』序 “春秋者 魯史記之名也 記事者 以事繫日 以日繫月 以月繫時 以時繫年 所以記遠近 別同異也 故史之所記 必表年以首事 年有四時 故錯舉以爲所記之名也.”
- 4) 徐彥, 『公羊傳疏』 “公羊何氏與賈服不二.....春秋者 道春爲生物之始 而秋爲成物之終 故云始於春 終於秋 故曰春秋也”.

으로 하여 후세의 賢人이 그것을 해설한 책을 의미한다. 다만 이 傳에는 그것을 지은 사람의 개인적인 관점이나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 영향을 주어 본래의 경전과는 다른 思想的인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다. 따라서 『春秋三傳』의 경우에도 경문상의 차이와 經을 해설함에 있어서의 관점 등에 있어서 상이함을 보이고 있다.

『春秋三傳』 가운데 가장 먼저 성행한 것은 『公羊傳』이다. 『公羊傳』은 보통 공자의 제자인 子夏가 公羊高에게 전한 것을 '口耳相傳' 하던 형태로 전해오다가, 漢代 초기 景帝 때 公羊壽가 그의 제자인 胡母子都와 함께 책으로 만든 것이다.⁵⁾ 그 뒤 胡母子都는 『公羊傳』의 조목을 밝히는 條例를 지었고, 이를 근거하여 後漢 때 何休에 의해 『公羊傳』의 기본 주석서인 『春秋公羊傳解誥』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사상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준 학자는 武帝 때의 董仲舒로서, 그의 『春秋繁露』는 바로 이 공양학에 근거한 것이다.

『穀梁傳』은 일반적으로 子夏의 제자인 노나라 사람 穀梁赤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대체적으로 『公羊傳』보다 시기가 늦은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清初 閻若璩의 통계에 의하면 41,512字로 이루어졌으며, 事件의 내용에 관계없이 공자가 무슨 뜻으로 썼느냐 하는 義를 두고一句一句씩 一問一答으로 그 체재를 이루고 있다. 『穀梁傳』은 漢初에 『魯詩』를 전했던 인물인 申培公으로부터 시작해서 瑕丘江公에게로 전해

졌다. 그 후 前漢代 宣帝, 元帝 이후에 비로소 『公羊傳』과 함께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동진 때에 范寧이 수십 인의 舊說을 수집해서 『穀梁傳集解』를 내어 지금까지 전한다.

『左氏傳』이 〈春秋三傳〉 가운데 가장 늦게 성립한 책이면서도 가장 넓게 읽힌 경전이 된 것은 무엇보다도 사실 기록에 대한 충실성 때문이다. 이처럼 역사기록에 있어서 사실에 대한 충실한 장점을 지닌 『左氏傳』은 바로 그런 성격 때문에, 策書體⁶⁾로 되어 이해하기 어려운 『춘추』에 대한 훌륭한 해석서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것이라 하겠다. 이런 『左氏傳』의 장점에 대해, 『四庫全書』에서는, “역사서의 도리는, 찬술은 간략하여야 하고 考證은 자세해야 하니, 『左傳』보다 상세한 것이 없고 『춘추』보다 간략한 것이 없다”⁷⁾라고 하여, 『左氏傳』의 상세한 사적이 바로 『춘추』를 지은 근거인 동시에 『춘추』를 이해할 수 있는 근거라고 하였다. 『左氏傳』의 저자와 서명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이 있으나 공자와 동시대의 사관인 左丘明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며, 서명에 있어서는 『左氏春秋』라는 명칭이 後漢 때 학관이 세워지면서 『춘추』에 대한 해석서로 공인을 받으면서 『春秋左氏傳』으로 정착했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⁸⁾ 孔穎達의 『五經正義』의 성립을 통해 『左氏傳』은 오경 가운데 『춘추』에 대한 정통 해석서로서의 위치를 갖게 되었으며, 당연히 과거시험의 교본으로 사용되었다.

5) 林東錫. 1986. 『中國學述綱論』. 서울: 고려원, pp.109-110.

6) 『周禮』 등에서 사용된 周나라 이전의 기록방식으로 특정유형의 사건기록을 특정어구로 표현한다.

7) 〈四庫全書總目提要〉 史部總敍 “史之爲道 撰述欲其簡 考證欲其詳 莫詳於左傳 莫簡於春秋”

8) 鄭太鉉. 2001. 『春秋左氏傳』.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pp.13-14.

〈春秋三傳〉의 經과 傳을 비교해 보면 『左氏傳』의 경우 다른 두 傳과 현격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古文學派와 今文學派간의 견해차에 의한 十二公의 紀年 구분차로 인해 『左氏傳』의 경우 12편, 『公羊傳』, 『穀梁傳』의 경우 11卷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左氏傳』에서는 經文이 魯哀公 16년, 즉 공자의卒年까지로 되어 있어 실제 『춘추』 本經의 魯哀公 14년보다 2년이 많다. 또 傳文에 있어서도 哀公 27년을 넘어 다음의 悼公 4년까지 이어져서 『춘추』 本經에 비하면 무려 17년이나 더 많다. 셋째, 『左氏傳』과 『춘추』를 비교해 보면 經에서는 다루었으나 傳에서는 다루지 않고 빠진 부분이 보인다.

2.2 『春秋』의 수용과 전개

한국으로의 유학 전래시기에 대하여는 기록이 부족하여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정착에 관하여는 그것의 제도화에 의하여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성리학이 독존하게 되는 宋代 이전에 있어 유학교육은 바로 『五經』에 대한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유학의 전래는 곧바로 유학교육의 기본서인 『五經』의 전래를 뜻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삼국시대의 기록에 나타나는 유교 관련 사실을 정리하여 유학의 전입 시기를 유추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춘추』의 수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중국의 正史인 『唐書』에는 “고구려 풍속에 서적을 사랑하여 비천한 자들도 거리마다 큰 집을 세워 扁堂이라고 하고, 子弟는 혼인하기 전까지 여기서 주야로 독서하고 弓術을 연마했으며, 교과로서 五經, 史記, 漢書, 後漢書, 三國志, 孫盛의 晉陽秋, 玉篇, 字統, 字林과 또 文選을 더욱 愛重히 하였다”⁹⁾라 하여 고구려에서 五經에 대한 교육이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小獸林王 2년(372)에는 중국에서 학교제도를 도입하여 太學을 설립하였으며,¹⁰⁾ 그 이듬해인 373년에는 처음으로 律令을 반포하였다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다.¹¹⁾ 李基白은 경당의 설립 연대에 대하여 장수왕 15년(427)설을 주장하고 있는데,¹²⁾ 이러한 주장과 태학설립, 율령반포 등을 통해 유교를 정치사상으로 받아들인 시기로 추정하건대 고구려에 있어서 유교는 소수림왕 재위년 이전인 4세기 중반 이전에 전래된 것으로 보이며, 5C 후반에는 지방에 이르기까지 교육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백제에 있어서도 유학전래에 관해 직접적으로 언급된 사료는 없으며, 다만 최초 전래에 있어서는 문화전파의 경로로 볼 때에 고구려를 통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舊唐書』 百濟條를 보면, “그 서적에는 五經, 諸子書, 史書가 있으며 表疏文은 중국의 法式에 의한다”¹³⁾라고

9) 『舊唐書』 卷第149 東夷 高麗條 “俗愛書籍 至於衡門廡養之家 各於街衢造大屋 謂之局堂 子弟未婚之前 曝夜於此讀書習射 其書有五經及史記漢書范曄後漢書三國志孫盛晋春秋玉篇字統字林有文選 尤愛重之。”

10) 『三國史記』 卷第十八 高句麗本紀 第六 小獸林王條 “二年 夏六月 秦王堅 遣使及浮屠順道 送佛像經文 王遣使廻謝 以貢方物 立大學 教育子弟。”

11) 『三國史記』 卷第十八 高句麗本紀 第六 小獸林王條 “三年 始頒律令。”

12) 李基白. 1967. 高句麗의 局堂: 韓國古代國家에 있어서의 未成年集會의 一遺制. 『歷史學報』 35 · 36: 42-54.

13) 『舊唐書』 百濟條 “其書籍有五經子史, 又表疏并依中華之法。”

기록하고 있어 백제에서 유학이 성행하고 있었으며 『춘추』가 교육에 이용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三國史記』 근초고왕 조에는 “백제는 개국 이래 문자 기록이 없었으나 이때에 이르러 博士 高興을 얻어 비로소 기록을 하였다”¹⁴⁾는 기록이 나오는 바, 이전에 편찬된 적이 없는 史書라는 형식의 책자를 백제에서 독자적으로 편찬하였다고는 생각할 수 없으므로, 편년체 史書의 효시로 일컬어지는 『춘추』가 백제의 사서편찬에 참조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기록들을 미루어 보아 백제에서는 3세기 중반에 이미 유학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으며, 유학서의 전래가 이보다 앞선 시기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한다.

신라에서는 법흥왕 7년(520년)에 이르러 율령을 반포하였으며,¹⁵⁾ 진흥왕 6년(545)에는 居柒夫(?-?)에 의해 『國史』가 편찬되었다. 유교식 정치체제가 도입되고 또한 『춘추』를 참조하였음이 분명한 역사서가 편찬되었다는 것은 이미 이 시기에 유교의 전래가 이루어지고 정착되었음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神文王 2년(682)에는 國學을 세워 유학교육을 시행하였는데, 元聖王 4년(788)에 이르러서는 讀書三品制를 통해 단계를 설정하여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三科의 내용을 살펴보면 甲(禮記, 周易, 論語, 孝經), 乙(春秋左傳, 毛詩, 論語, 孝經), 丙(尚書, 論語, 孝經, 文選)으

로 이루어져 있는데 『論語』, 『孝經』이 필수 공통 과목이고, 『孟子』의 강독이 없고, 또 『春秋左傳』과 『毛詩』의 수학은 고문경학 교육과 관련이 있었다. 이는 국가교육기관에서 『춘추』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최초의 기록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구체적인 『春秋左傳』의 명칭이 드러남으로써 국내에 있어 <春秋三傳>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이러한 기록으로 판단하건대 신라로의 유학 전래는 6세기 이전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서는 교육과정을 알 수 있을 만큼 발전된 면모를 보이고 있다.

고려는 成宗 11년(992) 國子監의 설치로부터 경학교육이 본격화하였으니 이때에는 <春秋三傳>이 모두 교과목에 들어 있었다.¹⁶⁾ 또 崔沖(984-1068)의 九齋學堂을 비롯한 12公徒의 학당 교육에도 九經¹⁷⁾이 기본적인 교과였으니, 이즈음의 춘추학은 상당한 정도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고려 전기에 형성된 높은 經學의 기반은 安珦(1243~1306)에 의해 성리학이 들어온 뒤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어, 四書와 五經이 함께 중시되는 학문적 풍토를 형성하였다. 고려 말 성리학 정착기에 대표적인 학자인 牧隱 李穡(1328~1396)과 圃隱 鄭夢周(1337~1392)가 모두 五經에 밝았으니 표은의 <冬夜讀春秋>를 보면 그의 춘추학적 이해가

14) 『三國史記』 卷第二十四 百濟本紀 第二 近肖古王 三十年 “...古記云 ‘百濟開國已來 未有以文字記事 至是得博士高興 始有書記’ 然高興未嘗顯於他書 不知其何許人也”.

15) 『三國史記』 卷第四 新羅本紀 第四 法興王 七年條 “春正月 頒示律令 始制百官公服 朱紫之秩”.

16) 고려시대 국자감의 정규과정에서는 『孝經』, 『論語』, 『尚書』, 『穀梁傳』, 『公羊傳』, 『周易』, 『毛詩』, 『周禮』, 『儀禮』, 『禮記』, 그리고 『左傳』 등이 교수되었다.

17) 유학경전의 분류법 중 하나로 唐代에 성립되었다. 『詩經』, 『書經』, 『易經』, 『周禮』, 『儀禮』, 『禮記』, 『春秋左氏傳』, 『春秋公羊傳』, 『春秋穀梁傳』을 이른다.

상당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¹⁸⁾

조선조의 춘추학은 기본적으로 성리학적인 춘추학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이는 미완성인 程子의 『春秋傳』과 주자의 평가를 통해 〈春秋四傳〉의 하나로 존중된 『春秋胡氏傳』이 중시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程子의 『春秋傳』의 속편은 孤山 李樟의 『春秋輯注』라고 할 수 있으며, 『春秋四傳』에 관한 저술로 朴世采의 『春秋補編』, 沈大允의 『春秋四傳註疏抄選』과 繢傳, 徐壽錫의 『春秋傳註抄纂』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李震相의 『春秋集傳』은 앞의 다른 저술들이 기준의 『程傳』과 『胡氏傳』, 그리고 주자의 '春秋說'을 단순히 보충하거나 발췌한 수준인 것에 비해 나름의 저술 체계를 갖추었다.

이런 가운데 三傳學은 비교적 적은 편인데, 특히 공, 곡 양전에 대한 저술은 매우 드물다. 그 가운데 姜獻奎의 『春秋義例』와 简記 형식이기는 하지만 韓章錫의 『讀公羊傳』이 있으며, 『左氏傳』에 대한 저술로는 李恒福의 『魯史零言』, 崔錫鼎의 『左氏輯選』, 尹植의 『條問』, 成海應의 『杜注考異』 등이 있다. 특히 이항복의 『魯史零言』은 『左氏傳』의 外傳으로 불리는 『國語』를 『左氏傳』 속에 보충하여 內外傳의 합본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正祖는 재위 17년(1793)과 20년(1796) 두

차례에 걸쳐 여러 문신과 선비들을 대상으로 하여 總經講義를 거행하였는데, 이 가운데 『춘추』에 관해서 17년에 10조목, 20년에 8조목의 質疑를 통해 조선조 춘추학의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正祖의 또 하나의 업적은 奎章閣을 통하여 『春秋左氏傳』의 판본을 정리하여 『資治通鑑綱目』을 본받아 편찬, 간행한 점을 들 수 있다.

이렇듯 3세기에서 6세기 사이 삼국시대에 우리나라로 전래된 유학은 성리학이 전래되기 이전, 고려 말까지 오경을 중심으로 太學, 國學, 國子監 등의 중앙교육기관과 사학교육기관을 통하여 연구되었으며, 이후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단순한 중국 경전의 수용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학문의 영역을 구축하였다.

3. 『春秋』 板本의 유통양상

3.1 册板目錄상의 『春秋』 板本

이 연구에서는 册板目錄 중 작성시기가 분명한 것을 선정하여 여기에 수록된 『춘추』 판본을 지역별, 시기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여기에 사용된 목록은 총 15종 16개 판본¹⁹⁾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책판목록중의 서명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므로 서명은 목록에 기록된

18) 鄭太鉉. 2001. 『春秋左氏傳』.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p.22.

19) 분석에 사용된 册板目錄은 ① 欆事撮要 - 乙亥字本(1576), 南文閣 影印本(1586), ② 古書冊板有處攷 - 먹지사본(1700年頃), ③ 慶尙道冊板 - 李秉岐 舊藏本(1730年頃), ④ 册板置簿冊 - 雲卿 舊藏本(1740年頃), ⑤ 諸道冊板錄 - 서울대 藏本(1750年頃), ⑥ 完營冊板目錄 - 奎章閣 藏本(1759年頃), ⑦ 嶺湖列邑所在冊板目錄 - 姜氏文庫 藏本(1760年頃), ⑧ 古冊板有處攷 - 먹지사본(1780年頃), ⑨ 册板錄 - 尹氏文庫 藏本(1780年頃), ⑩ 通文館志 - 奎章閣 藏本(1795年頃), ⑪ 鎏板考 - 整理字本(1814년), ⑫ 鑄字所應行節目 - 奎章閣 藏本(1814年), ⑬ 書冊目錄 - 南涯 舊藏本(1815년), ⑭ 各道冊板目錄 - 奎章閣 藏本(1840년), ⑮ 完營客舍冊板目錄 - 南涯 舊藏本(1885) 등 15 종 16개 목록이다.

그대로를 따랐다. 책판목록상의 『춘추』 판본은 지역별로 볼 때 주로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開板되었으므로 전라도, 경상도, 기타지역 등 세 개의 개판지역으로 나누었으며, 시기별로는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하여 임진왜란 이전과 임진왜란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²⁰⁾ 아래의 〈표 1〉은 이를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조사결과 경상지역에서는 모두 5개 지역에

서 9종의 『춘추』 책판이 소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기별로 보면 임란이전에 4개 지역에 5종의 책판이, 임란이후에 3개 지역에 4종의 册板이 소장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라지역에서는 모두 10개 지역에서 6종의 『춘추』 册板을 소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기별로 보면 임란이전에 4개 지역에 4종의 책판이, 임란이후에 6개 지역에 4종의

〈표 1〉 册板目錄에 수록된 『春秋』 册板²¹⁾

目錄		攷事 撮要	攷事 撮要	壬辰 倭亂	古書 冊板 有處 攷	慶尙 道冊 板	冊板 置簿 冊	諸道 冊板 錄	完營 冊板 目錄	嶺湖列邑 所在冊板 目錄	古冊 板有 處攷	冊板 錄	通文 館志	鏤板 考	鑄字 所應 行節 目	書冊 目錄	各道 冊板 目錄	完營 客舍 冊板 目錄	
地域		1576	1585	-	1592	1700	1730	1740	1750	1759	1760	1780	1780	1795	1814	1814	1815	1840	1885
慶尙 地域	慶州	胡春	胡春		胡春	春秋 (地 域不 明)					胡春								
	尙州										春秋							春秋	
	星州	春附 左傳	春附 左傳		左春							左春 小春							
	榮川	春大	春大																
	晉州	會春	會春																
全羅 地域	錦山	左傳	左傳																
	羅州								左鈔	左傳									
	寶城	春俗	春俗																
	淳昌											左傳							
	靈巖	春俗																	
	益山					春秋		春秋											
	全羅 監營							左傳											
	全州	胡春	胡春			四傳		四傳		四傳									
其他 地域	左水營					四傳													
	泰仁														左傳 春秋	左傳			
平壤		春秋																	
不明												經正	春正	春秋	左傳				

20) 册板目錄상의 『춘추』 판본을 분석함에 있어 그 시기적 구분의 기준점을 임진왜란으로 정한 것은 이 사건을 기준으로 조선사회가 정치, 사회적으로 분명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음에 기인한다.

21) [범례] 표에서 사용된 서명은 축약서명으로 그 사용례는 아래와 같다. 經書正音 → 經正, 四傳春秋 → 四傳, 小全春秋 → 小春, 左傳 → 동일, 左傳鈔評 → 左鈔, 左傳春秋 → 左春, 春秋 → 동일, 春秋大文 → 春大, 春秋附錄(附錄春秋) → 春附, 春秋正俗 → 春俗, 春秋正音 → 春正, 胡傳春秋 → 胡春, 會通春秋 → 會春

책판이 소장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타 지역으로는 평양에서 임진왜란 이전에 판각한 『춘추』 1종이 나타나며, 기타 지역을 알 수 없는 판본으로 임진왜란 이후에 판각한 『經書正音』, 『春秋正音』, 『춘추』, 『左傳』 등 4종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책판목록상의 『춘추』 판본은 총 17개 지역에서 14종의 책판이 소장되었던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역적 측면에서 개괄하면 전라지역이 10개 지역에서 6종, 경상지역이 5개 지역에서 9종, 기타지역에서 5종의 책판이 소장되었던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책판이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에 소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책판의 개판에 있어 여타 지역보다 경제력이 있던 지방에서 주로 행하여졌던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시기적으로는 임란 이전이 10종, 임란 이후가 8종이 소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임진왜란 이전에 소장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던 판본들이 임진왜란 이후에 미소장인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책판목록상에는 상당수의 『춘추』 책판들이 소장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조사된 현존본 『춘추』 판본의 경우 조선 전기에 간행된 것들이 상당히 드물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상당수의 책판들이 임진왜란 시에 소실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진왜란 이후에 나타나는 판본들의 경우 새롭게 판각되어 소장된 책판임을 알 수 있다.

3.2 現存本 『春秋』 板本의 현황

현존하는 『춘추』 판본의 전체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고서를 소장하고 있는 주요 기관

들의 고서종합목록과 주요대학도서관의 고서 목록DB를 검색하여, 『춘추』 주해와 관련된 제판본의 종합적인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각 소장기관을 방문하여 촬영, 복사 등을 통해 실물을 확인하고 중복된 자료를 배제하고 목록상에 잘못 기재된 부분들 정리하여 현존본 『春秋』 판본의 서지사항을 담은 실제적인 〈綜合書目〉을 작성하였다. 작성된 〈종합서목〉을 기초로 하여 『춘추』 판본을 분석한 결과 서명별로 크게 12종의 『춘추』 註解本이 현존하고 있으며, 板種別로 활자본 14종, 목판본 13종 등 총 27종의 판본이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의 〈표 2〉는 『춘추』 판본의 현황을 도표로 정리한 것이다.

4. 『春秋』 板本의 類型別 分析

4.1 板種別 分析

앞의 3장에서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춘추』 註解本은 크게 서명별로 12종이 현존하고 있으며, 목판본과 활자본이 각각 13과 14종으로 총 27종의 판본이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목판본 『춘추』 註解書의 경우 번각본 계열이 서명별 7종, 판본별 8종이 전해지고 있으며, 그 외에 목판으로 인쇄된 판본이 5종 나타난다. 번각본의 경우 금속활자본을 저본으로 한 판본이 3종, 목판본을 번각한 판본이 1종, 목활자본을 번각한 판본이 4종으로 나타났다.

활자본으로 간행된 『춘추』 註解本은 서명별로 9종, 판본별로 총 14종이 현존하고 있었으

〈표 2〉 現存本『春秋』板本 조사현황표

書名	板種	卷冊數	刊行年	板式의 特徵			
				邊欄	半郭(cm)	行字	魚尾
五經百篇	木板本	5卷5冊	1798	四周雙邊	26.2×18.0	7行14字	內向二葉花紋魚尾
音註全文春秋括例始末左傳句讀直解	元板隸刻本	70卷18冊	1431	左右雙邊	15.0×10.7	12行22字	下段小黑口 上下下向黑魚尾
	癸未字隸刻本	70卷16冊	1454	左右雙邊	21.5×14.0	8行17字	上下下向黑魚尾
	初鑄甲寅字 (多混補字版)	70卷16冊	1545-67	左右雙邊	25.5×17.5	10行17字	大黑口 內向黑魚尾
	木板本	70卷16冊	1635	四周單邊	20.7×14.7	8行17字	上下下向黑魚尾
春秋經傳集解	初鑄甲寅字	70卷7冊	1506-44	四周雙邊	26.1×16.7	10行18字	上下下向黑魚尾
	甲寅字體 訓鍊都監字本	30卷14冊	1611	四周雙邊	24.9×15.8	9行17字	內向二、三葉花紋魚尾
	戊申字	30卷15冊	1663-1776	四周單邊	24.2×17.0	10行17字	內向二葉花紋魚尾
春秋經左氏傳句解	元板隸刻本	70卷7冊	1431	左右雙邊	17.0×12.3	14行25字	上下大黑口 上下下向黑魚尾
春秋正音	木活字	4卷2冊	1735	四周單邊	25.7×16.4	10行20字	內向二葉花紋魚尾
	木板本	4卷2冊	1784	四周單邊	23.3×16.0	10行20字	內向二葉花紋魚尾
春秋左氏傳	丁酉字并春秋綱字	10冊	1797	四周雙邊	25.4×17.0	大:5行12字, 中:10行18字	下向黑魚尾
	丁酉字并春秋綱字隸刻本	27卷10冊	1797-1800	四周雙邊	25.0×17.0	大:5行12字, 中:10行18字	下向黑魚尾
春秋左傳	戊申字	50卷15冊	1663-1776	四周雙邊	23.9×17.2	10行17字	內向二葉花紋魚尾
春秋左傳詳節句解	木板本	35卷10冊	壬亂以後	四周雙邊	21.5×17.1	12行21字	內向二葉花紋魚尾
春秋左傳直解	甲辰字	11卷7冊 全 未詳	16C中	四周單邊	20.8×14.6	12行19字	內向三葉花紋魚尾
春秋集傳	木活字	20卷10冊	1897년	四周雙邊	22.3×16.5	10行22字	內向一、二葉花紋魚尾
春秋集傳大全	戊申字(A)	37卷35冊	1663-1776	四周單邊	24.8×16.8	10行18字	內向二葉花紋魚尾
	戊申字(B)	37卷20冊	1663-1776	四周單邊	24.7×17.1	10行18字	內向一~五葉花紋魚尾
	甲寅字體 訓鍊都監字本	55卷 55冊	17C初	四周雙邊	26.3×17.7	10行18字	內向三葉花紋魚尾
	甲寅字體 訓監字本隸刻本	55卷52冊	17C後	四周雙邊	25.1×17.0	10行18字	內向二、三葉花紋魚尾
	戊申字(C)	55卷55冊	1663-1776	四周單邊	25.8×17.0	10行18字	內向二葉花紋魚尾
春秋胡氏傳	甲寅字體 訓鍊都監字本	30卷10冊	17C初	四周雙邊	24.5×15.6	10行19字	內向三葉花紋魚尾
	甲寅字體 訓監字本隸刻本	30卷6冊	17C後	四周單邊	24.2×16.5	10行19字	內向二葉花紋魚尾
	甲寅字體訓監字 再隸刻	30卷10冊	18C初	四周雙邊	23.2×16.4	10行19字	內向二葉花紋魚尾
	乙亥字隸刻本	30卷10冊	16C	四周雙邊	22.3×16.8	10行19字	內向一、二葉花紋魚尾 或 內向黑魚尾
	訓鍊都監字 隸刻本	7卷2冊 全 未詳	17C後	四周單邊	25.0×16.4	10行19字	內向三葉花紋魚尾

며, 이 중 금속활자로 간행된 판본이 서명별 7종, 판본별 9종으로, 목활자본이 서명별 5종, 판본별 5종으로 분석되었다. 본 판본들에 사용된 금속활자를 살펴보면, 먼저 初鑄甲寅字로 간행된 판본이 2종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音註全文春秋括例始末左傳句讀直解』 판본의 경우 다수의 補字가 혼입되어 간행된 것으로 보아, 초주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시기에 인출된 활자본으로 보인다. 甲辰字로 간행된 판본과 丁酉字并春秋綱字로 간행된 판본이 각각 1종씩 전해지고 있으며, 戊申字로 간행된 판본이 가장 많아 5종이 혼존하고 있다. 목활자본의 경우 갑인자체 훈련도감자본이 3종 존재하며, 이 외에 기타 목활자본이 2종 나타났다.

4.2 刊行時期別 分析

『춘추』註解本을 그 간행시기에 따라 임진왜란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면,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춘추』註解本은 목판본 4종, 활자본 3종 등 7종이며, 임란이후 간행된 판본은 목판본이 9종, 활자본이 11종 등 20종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활자본 중에서는 금속활자본이 6종, 목활자본이 5종인 것으로 구분되었다. 임진왜란 이후본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왜란과 호란의 양란을 거치면서 조선전기에 간행된 많은 판본들이 일실된 데에서 연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춘추』註解本은 활자본 3종, 목판본 4종으로 나타났는데 목판본 4종 중 3종은 모두 활자본의 번각본인 것으로 나타났다. 활자본에 사용된 활자를 살펴보면, 초주갑인자로 간행된 판본이 2종, 갑진자로

간행된 판본이 1종이었다. 조선시대에 간행된 『춘추』註解本의 경우 元板을 底本으로 한 번각본을 시작으로 『춘추』註解本이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천박물관에서 소장중인 『春秋經左氏傳句解』의 발문 중에 나타난 "...經書·史書가 다 갖추어졌으나, 『左氏傳』만은 간행되지 못하여 춘추를 공부하는 사람이 상고할 길이 없었다..."라는 기록은 국내에서 『춘추』가 최초로 간행된 시기가 世宗 13년 (1431)임을 명확히 드러나 있다. 『音註全文春秋括例始末左傳句讀直解』의 판본은 1431년에 初刊된 이후 端宗, 明宗대를 거쳐 임진왜란 이후 仁祖대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조선전기에 수입된 元板本을 底本으로 하여 간행된 본 註解書가 얼마나 널리 사용되어졌는지를 가늠케 한다.

임란이후 간행된 『춘추』註解本은 활자본이 11종으로 이중 금속활자본이 6종, 목활자본이 5종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목판본이 9종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금속활자본의 경우 戊申字本이 5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이외에 丁酉字并春秋綱字 판본이 1종 나타나고 있다. 목활자본은 甲寅字體 訓鍊都監字 판본이 3종, 기타 목활자본이 2종으로 조사되었다. 9종으로 나타난 목판본의 경우 대부분이 활자본의 번각본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 가장 많은 간행기록이 나타나는 판본이 『春秋集傳大全』인데, 이는 조선전기에 『춘추』의 정본으로서 가장 많이 활용된 『春秋集傳大全』이 조선후기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간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하여 오히려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春秋集傳大全』의 판본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

은 임진왜란으로 인한 서적의 유실이 강도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일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春秋胡氏傳』의 판본들도 다수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성리학의 대의명분에 부합하는 『春秋胡氏傳』이 성리학을 정치, 사회, 문화 전반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으로 삼은 조선시대에서 비중 있게 받아들여졌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전기의 『春秋集傳大全』과 비교하여 후기의 정본으로 여겨지는 『春秋左氏傳』의 편찬 이후에는 『春秋集傳大全』의 간행 실례를 찾아볼 수 없어, 『春秋左氏傳』이 정조대에 간행된 이후 『춘추』 학습의 주요한 교재로서 활용되었으리라 짐작하게 한다.

5. 『春秋』 板本의 形態別 分析

5.1 邊欄

우리나라 고서의 판식은 邊欄의 형태에 따라 四周單邊, 四周雙邊, 左右雙邊(상하는 단변)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현존하는 『春秋』 板本의 경우 27종의 판본이 각각 四周單邊 10종, 四周雙邊 13종, 左右雙邊 4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활자본의 경우 사주단변과 사주쌍변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좌우쌍변의 경우 1종만이 나타나고 있으며, 목판본은 사주쌍변이 6종으로 큰 비율을 나타내고 사주단변과 좌우쌍변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목판본 『춘추』 註解本을 변란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면 四周單邊이 4종, 四周雙邊이 6종, 그리고 左右雙邊이 3종인 것으로 나타나

사주쌍변이 주류를 이루고 나머지 두 형태가 비슷한 비율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15세기에 간행된 목판본 3종의 경우 모두 좌우쌍변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 초기 목판본 『춘추』 註解書의 변란형태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후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부터 조선 말기까지 나타나는 목판본의 경우 사주단변과 사주쌍변이 고루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활자본의 경우 변란에 있어 四周單邊이 6종, 四周雙邊이 7종, 左右雙邊이 1종으로 나타났다.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부터 조선 말기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판본이 사주단변이 아니면 사주쌍변의 변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좌우쌍변의 변란을 가진 판본은 조선전기에 간행된 『音註全文春秋括例始末左傳句讀直解』 1종이 유일하다.

목판본과 활자본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전기에 간행된 판본의 경우 좌우쌍변의 변란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다만 中宗대에 초주갑인자로 간행된 『春秋經傳集解』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주쌍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둘째, 목판본과 활자본 모두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 이후에는 사주단변과 사주쌍변만이 나타나고 있어, 조선 후기에는 좌우쌍변의 변란 형식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5.2 行字數

활자본과 목판본 모두 10행의 형태를 취한 판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자수에 있어서는 한 행에 14자에서 25자까지 다양

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丁酉字并 春秋綱字本 『春秋左氏傳』과 그 번각본의 경우 大字가 5행12자, 中字가 10행18자로 이루어졌는데 본문의 대다수가 中字로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목판본 『춘추』 註解本의 行字數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크게 8종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는 각각 7행14자 판본이 1종, 8행17자 판본이 2종, 10행18자 판본이 2종, 10행19자 판본이 4종, 10행20자 판본이 1종, 12행21자 판본이 1종, 12행22자 판본이 1종, 그리고 14행25자 판본이 1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목판본 13종의 판본 중에서 7종의 판본이 10행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10행의 행수를 가진 판본 중에서는 19자의 자수를 가진 판본이 4종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중 『五經百篇』은 『춘추』 註解書 중 유일하게 7행14자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音註全文春秋括例始末左傳句讀直解』는 유일한 8행의 형태를, 『春秋經左氏傳句解』의 경우 유일한 14행의 형태를 취한 판본들이다. 行字數와 간행시기와는 큰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다만 17,8세기에 간행된 대부분의 판본이 10행의 형태를 띠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라 하겠다.

활자본 계열은 크게 7종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는 각각 9행17자 판본이 1종, 10행17자 판본이 3종, 10행18자 판본이 6종, 10행19자 판본이 1종, 10행20자 판본이 1종, 10행22자 판본이 1종, 그리고 12행19자 판본이 1종으로 분포되어 있다. 목판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0행의 형태를 취한 판본이 대다수인데, 14종의 판본 중 12종이 10행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목판본

보다도 10행 형태의 비중이 더욱 큰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春秋集傳大全』의 경우 모두 10행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갑인자체 훈련도감자본 『春秋經傳集解』의 경우 『춘추』 註解本 중에서 유일한 9행 형태를 띠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목판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간행시기와의 상관관계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5.3 魚尾

『춘추』 註解本의 魚尾 형태를 살펴보면, 黑魚尾의 형태를 띤 것이 8종, 花紋魚尾의 형태를 띤 것이 19종으로 화문어미를 띤 판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문어미 내에서도 內向二葉花紋魚尾의 형태를 취한 것이 10종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다.

목판본 『춘추』 註解書의 魚尾를 살펴보면, 크게 흑어미와 화문어미로 나눌 수 있는데 각기 5종과 8종이 나타나고 있다. 흑어미의 경우 하단에 소흑구가 있고 가운데 부분에 上下下向黑魚尾의 형태를 취한 판본이 1종, 上下下向黑魚尾의 형태를 취한 판본이 2종, 상하에 대흑구가 있고 가운데에 上下下向黑魚尾의 형태를 취한 판본이 1종, 그리고 상단 부분에만 下向黑魚尾의 형태를 취한 판본이 1종 나타나고 있다. 화문어미의 형태를 취한 판본의 경우는 8종의 판본 모두 內向花紋魚尾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 중 5종의 판본이 2葉으로 나타났다. 임진왜란 이전인 조선전기에 간행된 목판본 『춘추』 註解本의 경우 예외 없이 판심의 형태가 흑어미의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임진왜란 이후에 간행된 대부분의 판본이 화문어미의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

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1635년에 간행된『音註全文春秋括例始末左傳句讀直解』와 正祖대에 간행된『春秋左氏傳』이 흑어미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문어미와 흑어미의 형태를 취한 판본의 비율은 8:5로서 화문어미의 형태를 취한 판본이 좀더 많이 보이고 있다.

활자본의 경우도 목판본과 마찬가지로 크게 흑어미와 화문어미로 나누어지며, 흑어미의 형태가 3종, 화문어미의 형태가 11종으로 나타났다. 세분해보면, 흑어미에서는 대흑구가 존재하고 가운데 부분에 內向黑魚尾의 형태를 띤 판본 1종, 상단 부분에 下向黑魚尾의 형태를 띤 판본 1종, 그리고 上下下向黑魚尾의 형태를 띤 판본이 1종 존재하고 있으며, 화문어미의 경우에는 모두 內向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 중 花紋의 수에 따라 5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2葉의 형태를 취한 것이 5종, 3葉의 형태를 취한 것이 3종으로 화문어미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화문어미의 경우 임란 직전인 16세기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19세기 말에 간행된 판본에까지 나타나고 있어 임란전후로부터 조선 말기에 이르기까지 조선후기 전반에 걸쳐 화문어미가 지속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흑어미의 형태를 띠고 있는 세 판본 중 正祖대에 간행된『春秋左氏傳』을 제외한 나머지 두 판본은 모두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화문어미와 흑어미의 형태를 취한 판본의 비율은 11:3으로 화문어미의 형태를 취한 판본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結論

이 연구에서는 조선시대에 간행된『춘추』판본에 대하여 문현상의 기록과 현존하는 판본들을 조사하여 이를 유형별 및 형태별로 분석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조선시대에 간행된『춘추』에 대하여 서명별 종수와 전체 판종 유통현황, 판종별·간행시기별 판본의 특성, 형태적 특징 등을 밝힐 수 있었는데 이를 정리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존하는『춘추』註解本 중에서 동일본의 수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어 조선시대에 있어 가장 활발히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판본은『春秋經傳集解』,『春秋集傳大全』, 그리고『春秋左氏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장에서도 언급한 바이지만,『春秋集傳大全』과『春秋左氏傳』이 각각 조선전기와 조선후기의『춘추』정본으로서 국가적으로 印行, 廣布하였으며, 또한『春秋經傳集解』의 경우 조선 초기에『左氏傳』이 송상되는 학풍 속에서 중요시되었던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册板目錄상의 기록에 따라『춘추』판본의 간행기록을 분석한 결과 册板目錄상의『춘추』판본은 총 17개 지역에서 14종의 册板이 소장되었던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전라지역이 6종, 경상지역이 9종, 기타지역에서 5종의 책판이 소장되었던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책판이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에 소재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시기적으로는 임란 이전이 10종, 임란 이후가 8종의 책판이 開板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선시대에 간행된『춘추』판본은 서명별로 12종이 나타나고 있으며, 板種別로는

활자본 14종, 목판본 13종 등 총 27종의 판본이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활자본에서 무신자본이 5종, 갑인자체훈련도감자가 3종이 나타나고 있어 가장 많은 판본을 가진 활자가 무신자와 갑인자체훈련도감자임을 알 수 있었다.

넷째, 간행시기별로는 크게 임진왜란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각각 임란이전의 판본이 활자본 3종, 목판본 4종으로 총 7종이었으며, 임란이후 판본이 활자본 11종, 목판본 9종으로 총 20종인 것으로 나타나 임란이후에 간행된 판본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邊欄의 형태에 있어서는 27종의 판본이 각각 四周單邊 10종, 四周雙邊 13종, 左右雙邊 4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四周雙邊의 경우 조선전기에만 사용된 것이 특징적이며 임진왜란 이후에는 四周單邊과 四周雙邊의 형태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行字數에 있어서는 활자본과 목판본 모두 10행 형식으로 된 판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간행된 시기에 따른 특징은 그다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곱째, 魚尾의 형태에서는 黑魚尾의 형태를 띤 것이 8종, 花紋魚尾의 형태를 띤 것이 19종으로 나타났다. 조선전기에 간행된 판본의 경우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흑어미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외는 대조적으로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부터 조선후기 전반에 걸쳐 간행된 판본의 경우에는 대부분 화문어미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춘추』의 성립 및 전개과정과 『춘추』 판본의 한국 유통현황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현존하는 『춘추』 판본의 유형별, 형태별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향후 여타 四書와 五經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간년추정 및 판본의 선후관계를 살피기 위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조선시대 전반에 걸친 유학서의 출판 및 유통에 대한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김두종. 1974.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탐구당.
 김충열. 1998. 『한국유학사』. 서울: 예문서원.
 금장태. 1994. 『韓國儒學史의 理解』. 서울: 民族文化社.
 문선규 역자. 1985. 『(新完譯)春秋左氏傳』. 서

울: 明文堂.

- 박종홍. 1977. 『韓國思想史論考』. 서울: 서문당.
 불함문화사 편. 1997. 『한국유학사상논문선집』.
 불함문화사.
 서울대학교 규장각 편. 2000. 『五經百選』. 서울: 서울대학교규장각,
 서울대학교 규장각 편. 『奎章閣韓國本圖書解

- 題』. 서울: 서울대학교규장각, 2000.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편. 『春秋』.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8.
- 신양선 1996. 『조선후기 서지사 연구』. 서울: 혜안심우준. 1988. 日本訪書誌. 경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열린문화사 편. 2001. 韓國儒學思想論文選集 1 - 36. 서울: 열린문화사,
- 윤병태. 1992. 『朝鮮後期의 活字와 册』. 서울: 범우사,
- 윤병태. 『韓國書誌年表』.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72.
- 이병도. 1986. 『한국유학사략』. 서울: 亞細亞文化社,
- 이병도. 1987. 『韓國儒學史』. 서울: 亞細亞文化社,
- 이태진. 1989. 『조선유교사회사론』. 서울: 지식산업사,
- 임동석. 1986. 『中國學術綱論』. 서울: 고려원.
- 정형우. 1995. 『朝鮮朝 書籍文化 研究』. 서울: 九美貿易出版部.
- 정형우, 윤병태 [共]編著. 1995. 『韓國의 冊版 目錄』. 서울: 保景文化社.
- 천혜봉. 1990.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범우사.
- 한국인문과학원 편. 2001. 『中國思想論文選集』. 서울: 韓國人文科學院.
- 〈논문〉
- 김길낙. 1977. 백제유학에 관한 소고, 『한국유학사상논문선집』 67: 34-39.
- 구정수. 『朝鮮時代에 간행된 『心經』註解의 諸板本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송정숙. 1994. 『朝鮮朝에 있어서 四書의 수용과 전개: 『大學』과 『中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현주. 2002. 『朝鮮時代에 간행된 『論語』의 板本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현주. 2007. 『朝鮮時代 〈四書〉의 板本 研究』,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
- 양계봉. 『春秋左氏傳』의 內容과 編成에 관한 諸論議, “강남사회복지대학논문집” 16. : 623-639.
- 우정임. 2000. 朝鮮初期 書籍輸入 · 刊行과 그 性格-性理學書를 중심으로, 『釜大史學』 24: .39-69.
- 유명종. 1997. 한국의 유교 수용 문제, 『한국유학사상논문선집』 66: 47-68.
- 이문원. 1997. 유교사상과 고대교육: 고구려경당의 교육내용. 『한국유학사상논문선집』 67: 23-41.
- 이원명. 1997. 고려후기 성리학 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유학사상논문선집』 69: 275- 307.
- 이태진. 규장각 중국본 도서와 집옥재도서(集玉齋圖書), 『민족문화논총』 Vol.16. No.0. 1996.
- 정왕근. 2003. 『朝鮮時代에 刊行된 『大學』의 板本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정형우. 1989. 五經 · 四書大全의 輸入 및 그 刊行 廣布. 『東方學志』 63: 1-27.